

「DMZ 34年 秘境」내년초 放映

MBC · 無人 自動카메라로 잡은 生態系 다큐멘터리

國內自然총정리 自然保存의식 高提

문화방송(MBC)은 34년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채 훼손됨이 없이 완전보존되어 있는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생태계를 답사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내년초에 방영한다. MBC는 지난봄부터 DMZ 내에 무인자동 카메라를 설치, 생태계의 이모저모를 촬영했었는데 12월중순 현재 계절별 변화의 모습이 거의 담겨진 상태라고. DMZ 내에는 원시림과 함께 흰진달래, 비로용담 끈끈이주걱등 희귀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鐵原평야는 두루미를 비롯한 候鳥들의 이동통로연구에도 귀중한 지역이기때문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제작팀이 촬영에 성공한 생물은 희귀고산 식물 120여종, 해오라기 노란부리백로 재두루미등 조류 52종, 노루 산양등 12종, 어류 20여종등, 특히 산양 20~30마리가 떼지어사는 관경, 노란부리백로 해오라기등의 서식지확인, 그리고 6.25이후 사라졌던 일부 조류의 발견등을 큰수확으로 손꼽는다. 무인카메라를 의식치못한 동물들이 자연그대로의 작태가 포착된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제작진은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 생태계의 보존중요성, 동물과 함께사는 지혜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未知의 국내자연을 총정리하는 동시에 자연보존의 중요성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한다.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는 한상섭교수(강원대) 임양제교수(중앙대) 산림청 우한정박사등이 참가했다 한다.

韓國의 野生花研究家

김태정씨의 執念을 소개

KBS-2TV 은 지난 10월 11일밤 11시20분부터 한국야생화연구소장김태정씨의 10년에 걸친 한국야생화연구의 이모저모를 소개.

원래 음악가였던 金씨는 60년대 중반 영화음악을 제작했으며 CM 송(상업가요)도 했는데 77년부터 全北大 식물학과 송규택교수의 지도아래 한국의 야생화 연구에 몰두, 그동안 미국 유니온대서 박사 학위도 취

득하는등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했는데 이날밤 몇 가지 한국에만 있는 야생화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崔錫采 元老言論人(本會理事)과 任慶彬 教授(本會代議員) KBS TV-2에 出演

▲본회 이사 崔錫采 원로언론인은 12월 1일 밤 KBS TV-2 「11시에 만담시다」 1,600회 특집에서 과거 45년 동안의 시사적인 견해와 회고담을 피력.

▲본회학술담당부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任慶彬교수(농박·나무百科저자. 圓光大農大林學科·본회회원)는 지난 12월10일 아침 8시 50분 KBS-TV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시간에 출연하여 은행나무의 특징과 이용면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

日本 NHK제작 「黃河」新年初 放映

KBS-1TV · 自然·歷史·現在 등

KBS는 인류 4대문명 발상지의 하나인 中國대륙 黃河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그 유역에서 탄생된 문명과 오늘의 모습등을 총체적으로 담은 日本 NHK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黃河」를 신년초 1TV를 통해 방송한다.

흔히 中國대륙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黃河는 淸海省 바얀카르 산맥의 한봉우리인 해발 5천 4백42m의 야라다투오山에서 발원, 총길이 5천 4백64km, 유역면적 75만 2천 4백43km²에 이르는 中國人들의 정신적 고향이다.

각 60분물 10편으로 만들어진 「黃河」는 바로 이런 黃河를 발원지로부터 종착지인 발해만 항구에 이르기까지 추적하며 그 웅장한 자연경관과 함께 中國대륙과 中國人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는 또 黃河유역에서 싹튼 문명과 이江에 얽힌 역사, 주변의 유적과 유물, 그리고 이 강을 스쳐간 술한 영웅호걸들과 함께 지금 이 강유역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생활상 · 종교 · 독특한 풍속등을 폭넓게 취재, 黃河의 어제와 오늘을 문명사적으로 조명한다.

<j>